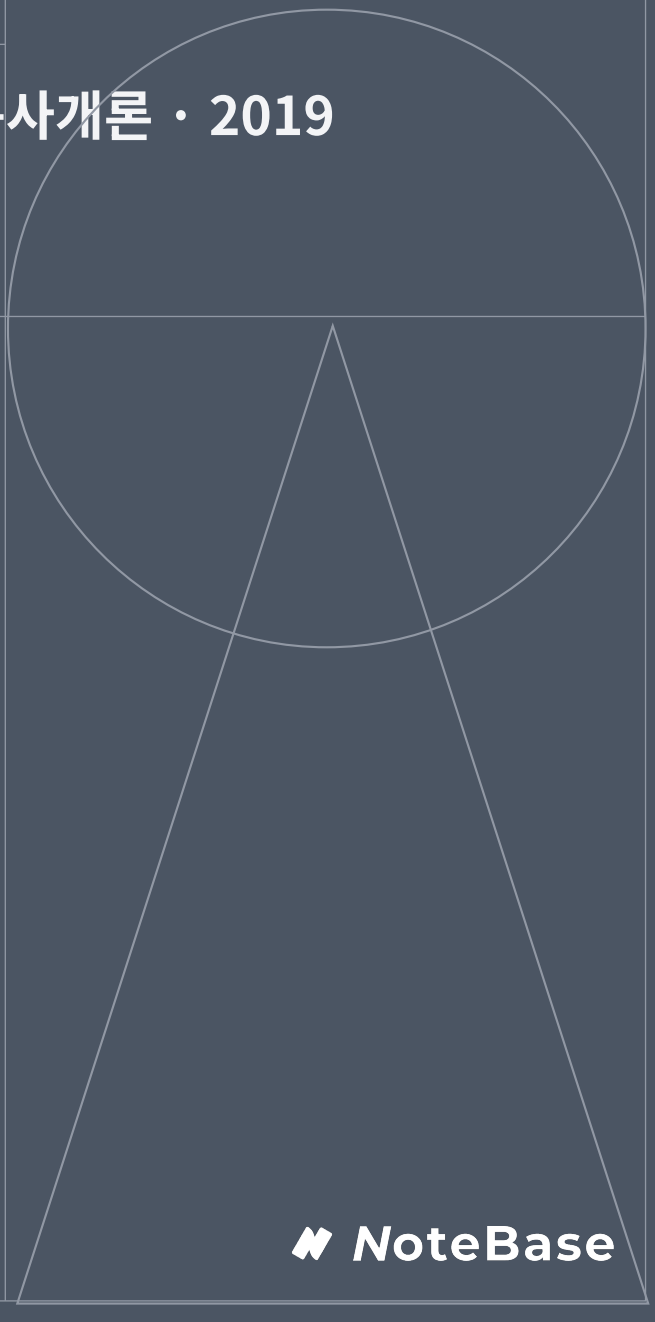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19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19

문 1. 의학 관련 분야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작한 정보원은?

① BIOSIS

② MEDLINE

③ SCOPUS

④ SSCI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MEDLINE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제작하는 **의학·생명과학 분야 서지 데이터베이스**이다.

공통 해설

MEDLINE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구축한 의학·생명과학 분야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이다. 서지 데이터베이스는 학술논문의 제목·저자·학술지 등 문헌을 식별하고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식별 기준은 의학 자료의 수록 여부만이 아니라 **의학 분야와 NLM이라는 제작기관의 결합**이며, 이에 대응하는 명칭이 MEDLINE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첨단 기술과 장비 사용 방법을 배우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3D 스캐너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창의 공간
◯ 사람들이 도구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학습 공간
◯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학습 환경이며, 지역사회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협업 공간

① 라키비움
② 가상도서관
③ 메이커 스페이스
④ 인포메이션 코먼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도구와 자원을 함께 쓰며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협력하는 공간이 메이커 스페이스이다.

공통 해설

메이커 스페이스는 사람들이 도구·장비·재료를 공유하면서 사용법을 배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창작·학습 공간이다. **만들기 활동을 통한 학습과 협업**이 중심이 된다.

지문의 3D 스캐너와 프린터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드는 수단이다. 장비 사용법을 익혀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설명은 제작 중심의 학습에,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한다는 설명은 공동 작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창작·학습·협업을 함께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정보원을 생성과 가공의 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3차 정보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백과사전

② 명감

③ 초록

④ 서지의 서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서지의 서지는 **2차 정보원인 서지를 다시 모아 안내하는 자료**이다. 문헌을 찾는 도구인 서지를 다시 찾게 해 주므로 3차 정보원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정보원을 생성·가공 단계로 구분할 때, 3차 정보원은 **2차 정보원을 다시 가공·조직하여 그 소재를 안내하는 자료**이다. 서지는 문헌의 저자·서명·출판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헌을 찾도록 돕는 2차 정보원이다. '서지의 서지'는 이러한 서지들을 모아 어떤 서지가 있는지 알려 주므로, 문헌을 찾는 도구를 다시 찾게 하는 3차 정보원에 해당한다.

백과사전과 명감은 기존 정보를 정리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인물·기관에 관한 사실을 제공하고, 초록은 원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2차 정보원이다. 이들은 **2차 정보원 자체의 소재를 안내하는 자료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4. 정보서비스 평가기법에 대한 설명 중 방법이 다른 기법은?

①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짧은 시간 내에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② 특정 표본 또는 무작위 표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③ 모든 해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함으로써 측정도구 변화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④ 해답자를 대면하여 구두질문을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나 의견, 태도, 경험 등과 같은 필요한 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대면하여 구두질문'은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면접법**이다.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수집하는 질문지법과 자료 수집 방식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질문지법: 같은 설문지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어 **넓은 범위의 다수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료를 수집하기 쉽다. 질문과 응답 형식을 통일하므로 응답을 비교·분석하기에도 유리하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응답의 진실성이나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언제나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질문지법: 조사 대상 표본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의견을 수집한다. 응답자가 설문 문항을 읽고 답을 작성한다는 점이 조사자가 구두로 질문하는 면접법과 구별된다.

③ 질문지법: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내용과 제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질문의 표준화**를 설명한다. 사람마다 다른 질문이나 표현을 사용하면 그 차이가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변화에서 생기는 오류를 줄인다.

④ 면접법: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 **구두로 질문하고 답을 듣는 방식**이다. 대화를 통해 응답자의 정보·의견·태도·경험 등을 파악하므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답을 받는 질문지법과 자료 수집 방식이 다르다.

자료 수집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①·②·③은 질문지법의 특성이고, ④는 대면 면접법의 설명이므로 다른 기법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참고면담과정에서 사용하는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질문의 유형은 “도서나 학술논문이 필요한가요?”이다.
ㄴ. 고정된 답변이 없이 이용자가 자신의 용어를 사용해서 정보요구를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ㄷ. 특정한 주제나 자료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좁혀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ㄹ. 사서의 경험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너무 일찍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폐쇄형 질문은 응답 범위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좁히고 확인**한다. '도서나 학술논문이 필요한가요?'처럼 자료 유형을 한정하여 묻는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도서나 학술논문이 필요한가요?'는 사서가 자료 유형을 제시하여 **응답 범위를 한정**하는 폐쇄형 질문이다. 이용자는 제시된 자료 유형의 필요 여부를 답하므로, 자신의 요구를 자유롭게 풀어 설명하는 질문과 구별된다.

ㄴ. X: 고정된 답변 없이 이용자가 **자신의 용어로 정보요구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개방형 질문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처럼 답변 내용을 미리 제한하지 않는다. 폐쇄형 질문은 이렇게 파악한 요구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ㄷ. O: 특정한 주제나 자료에 관해 답변 범위를 좁히고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의 특징이다. 필요한 자료의 종류나 시기처럼 **세부 조건을 특정하여 확인**하면 검색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ㄹ. X: 이용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게 하여 사서의 경험이나 편견에 따른 성급한 결론을 피하도록 돕는 것은 개방형 질문의 장점이다. 이용자가 요구의 배경과 맥락을 자유롭게 설명하면, 사서가 **자신의 추측만으로 요구를 단정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6. 자동색인에 사용되는 방법은?

① 클러스터링 기법

② 형태소 분석 기법

③ 신경망 분류기

④ K-means 기법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동색인은 문헌에서 검색에 사용할 색인어를 컴퓨터로 추출·선정하는 작업이다. **형태소 분석**은 어절을 분석하여 조사 등을 구분하고, 명사처럼 색인어로 쓸 수 있는 단위를 찾아낸다.

공통 해설

자동색인은 컴퓨터가 문헌의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출·선정하여 검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한국어에서는 명사에 조사가 붙어 나타나므로, 띄어쓰기 단위의 어절을 그대로 쓰기보다 **내용을 나타내는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형태소는 뜻이나 문법적 기능을 지닌 최소 단위이며, 형태소 분석은 어절을 이러한 단위로 나누고 품사 등을 파악하는 처리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를 '도서관'과 조사 '에서'로 분석하면, 문헌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서관'을 색인어 후보로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색인의 용어 추출에 사용되는 언어학적 방법이 형태소 분석 기법이다.

클러스터링과 그 한 방법인 K-means는 유사한 대상을 집단으로 묶고, 신경망 분류기는 입력을 학습된 범주로 분류한다. 이들의 군집화·분류 기능은 형태소 분석의 **어절 분석을 통한 색인어 후보 추출** 기능과 구별된다.

이 문항의 공식 채점 답은 형태소 분석 기법이다. 다만 자동색인에는 문헌에서 용어를 추출하는 방식뿐 아니라 **미리 정한 색인어를 문헌에 자동 부여하는 방식**도 있으며, 신경망 분류기도 후자에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시험 이전인 2018년에도 심층신경망의 다중 레이블 분류로 의학주제표목(MeSH)을 문헌에 부여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발문이 자동색인을 용어 추출이나 언어학적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식 답과 별개로 신경망 분류기의 활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근거는 부족하다.

NoteBase

문 7. 전통적인 불리언논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질의어와 문헌 간 유사성을 계산하여 결과물을 유사성의 크기에 따라 순위화하는 모델이다.

② 각 용어에 대한 가중치는 질의 혹은 문헌에 있는 용어의 상대적 중요성에 해당된다.

③ OR 연산자는 탐색문에 있는 둘 이상의 동의어나 관련어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한다.

④ 질의와 문헌 간 적합성 확률을 0%에서 100%까지 구분하여 적용하여 검색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OR는 연결한 검색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문헌**을 검색하는 연산자이다. 동의어나 관련어를 OR로 묶으면 어느 표현을 사용한 문헌이든 검색할 수 있어 검색 범위를 넓힌다.

선지별 해설

① X: 질의와 문헌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결과를 순위화하는 것은 벡터공간 모델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전통적인 불리언논리 모델은 AND·OR·NOT으로 구성한 **검색식의 충족 여부**에 따라 문헌을 검색하거나 제외하며, 유사도의 크기에 따른 순위는 부여하지 않는다.

② X: 용어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중치로 표현하는 것은 벡터공간 모델 등 가중치 기반 검색모델의 특징이다. 전통적인 불리언논리 모델에서는 용어의 중요성에 차등을 두지 않고, 문헌에 해당 용어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현하여 논리 연산에 사용한다.

③ O: OR는 연결된 용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면 검색 조건을 충족하는 연산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OR 승용차'는 '자동차'만 있는 문헌, '승용차'만 있는 문헌, 두 용어가 모두 있는 문헌을 검색한다. 따라서 같은 개념의 다양한 표현을 함께 찾도록 동의어나 관련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④ X: 질의에 대한 문헌의 적합확률을 추정하여 검색에 활용하는 것은 확률적 검색모델의 접근이다. 전통적인 불리언논리 모델은 적합성의 정도를 확률로 구분하지 않고 **검색식과의 일치·불일치**를 판단한다. 여기서 1과 0은 검색 조건의 충족 여부를 뜻하며, 실제 적합확률이 100% 또는 0%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8. <보기 1>의 ㉠ ~ ㉢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의 ⓐ ~ ⓕ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는(은) 시스템 안에 있는 적합문헌 수에서 검색된 적합문헌 수의 비율이다.
(㉡)는(은) 시스템으로부터 검색된 문헌 수에서 적합문헌 수의 비율이다.
(㉢)는(은)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부적합문헌 수에서 검색된 부적합문헌 수의 비율이다.
<보기 2>
ⓐ 정확률
ⓑ 재현율
ⓒ 보편율
ⓓ 부적합률
ⓔ 배재율
ⓕ 누락률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현율과 정확률은 분모가 각각 **전체 적합문헌**과 **검색된 전체 문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전체 부적합문헌 중 검색된 비율은 부적합률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 재현율: 시스템에 있는 전체 적합문헌 중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도 분모에 포함**하므로, 필요한 문헌을 얼마나 빠짐없이 찾아냈는지를 나타낸다.

㉡ ⓐ 정확률: 검색된 전체 문헌 중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분모인 검색된 전체 문헌에는 **적합문헌과 부적합문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검색 결과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낸다.

㉢ ⓓ 부적합률: 시스템에 있는 **전체 부적합문헌** 중 검색된 부적합문헌의 비율이다. 검색 결과에 불필요한 문헌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검색된 전체 문헌을 기준으로 구하는 비율과는 분모가 다르다. 누락률은 전체 적합문헌 중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 ㉡은 ⓐ, ㉢은 ⓓ에 대응하므로 ②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도서관 학술정보 탐색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 서비스(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지 않은 분산검색 방식을 사용한다.

② 도서관 소장목록 검색과 학술자원 검색을 분리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메타탐색 방법을 사용한다.

③ 이용자가 요청한 질의어를 디지털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내외부의 장서 시스템에 전달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수행된 검색결과를 조합하여 제공한다.

④ 도서관 장서, 기관 리포지토리, 구독하는 저널 기사, 공개 아카이브 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합 색인을 구축하여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탐색 결과를 제공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는 여러 출처의 자료 정보를 미리 모아 **통합 색인**을 구축하고, 이를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게 한다. 도서관 소장자료와 구독 학술자료, 공개 아카이브 자료 등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이유이다.

공통 해설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는 다양한 정보원의 자료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하나의 통합 색인으로 구축하는 서비스이다. 색인은 제목·저자·주제 등 자료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도서관 장서, 기관 리포지토리, 구독 저널의 기사, 공개 아카이브 자료 등을 색인에 포함하여, 이용자가 **하나의 검색창에서 여러 출처의 자료를 함께 탐색**하도록 한다. 도서관 소장목록 검색과 학술자원 검색을 별개의 검색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된 탐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자료 정보를 미리 통합하지 않고, 검색할 때마다 이용자의 질의어를 각 정보원의 시스템에 보내 그곳에서 나온 결과를 모으는 것은 **분산검색에 기반한 메타탐색**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여러 정보원의 결과를 한 화면에 보여 줄 수 있으므로, 화면이 하나라는 점만으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 핵심 구별 기준은 검색 전에 통합 색인을 구축하여 그 색인을 검색하는지, 검색 시점에 각 시스템으로 질의를 보내는지이다.

NoteBase

문 10. 온라인 정보자원의 이용 통계에 대한 기록과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사서와 출판업자, 정보중개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① DOI
② COUNTER
③ OAI-PMH
④ SSO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COUNTER는 **온라인 정보자원의 이용 통계를 일관된 기준으로 기록·보고**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서와 출판업자, 정보중개자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비교 가능한 이용 통계를 주고받을 수 있다.

공통 해설

COUNTER는 온라인 정보자원의 이용 통계를 표준화하는 조직으로, 통계의 집계와 보고에 관한 실무 지침인 'Code of Practice'를 마련한다. 핵심은 제공업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내는 대신 **동일한 이용 지표를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출판업자와 정보중개자는 이 기준에 따라 이용 통계를 제공하고, 사서는 서로 다른 제공업체의 통계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여 정보자원의 이용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발문의 '이용 통계에 대한 기록과 교환'은 COUNTER의 통계 표준화 기능을 가리킨다.

NoteBase

문 11. 참고면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언어는 표정, 동작, 자세 등을 포함한다.

② 가공적 행위(artifacts)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고 이용자의 선입견에 영향을 미친다.

③ 감정이입은 이용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질문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이용자 질문이 있을 만한 서비스 구역 주위를 걷는 것은 긍정적인 신체언어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정·동작·자세는 **신체언어**에 해당한다. **의사언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의 높낮이·크기·말하는 속도 등 음성적 특성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정·동작·자세는 **신체언어**에 속한다. 의사언어는 목소리의 높낮이, 크기, 말하는 속도, 말투 등 말에 수반되는 음성적 특성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하는지 날카롭게 말하는지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그 예이다.

② O: 가공적 행위에서 말하는 artifacts는 의복·장신구 등 외양과 관련된 인공적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는 사서의 역할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비언어적 단서**가 되므로, 이용자가 사서에게 느끼는 인상과 선입견에 영향을 미친다.

③ O: 감정이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서가 이용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용자의 긴장과 불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④ O: 질문이 생길 만한 서비스 구역을 순회하면 이용자는 사서가 가까이 있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쉽게 다가가 질문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신체언어이다. 안내대에 찾아오기 어려워하는 이용자에게도 도움을 제공할 기회를 만든다.

NoteBase

문 12.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유형만을 모두 고르면?

ㄱ. 촉각도서
ㄴ. 녹음도서
ㄷ. 데이지(DAISY)자료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시각장애인용 특수자료에는 **촉각이나 청각으로 내용을 이용**하도록 만든 자료가 포함된다.
데이지(DAISY)자료도 음성 이용과 구조화된 탐색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대체자료이다.

보기별 해설

ㄱ. O: 촉각도서는 그림이나 형태를 돌출시키거나 서로 다른 질감을 사용하여 **손으로 만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자료이다. 시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모양과 공간적 관계를 촉각으로 전달하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에 해당한다.

ㄴ. O: 녹음도서는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녹음한 자료이다. **문자를 눈으로 읽는 대신 소리로 듣게** 하므로 시각장애인의 독서를 지원한다.

ㄷ. O: 데이지(DAISY)자료는 책의 장·절 등 구조에 따라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대체자료이다. 음성으로 내용을 듣거나 텍스트를 보조기기로 읽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다.

ㄱ, ㄴ, ㄷ은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유형이므로, 세 보기를 모두 포함한 ④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뉴스나 블로그와 같이 자주 갱신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쉽게 제공해 주기 위한 XML 기반의 서비스는?

① RFID

② RSS

③ Topic Maps

④ Z39.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RSS는 뉴스나 블로그의 새 글 정보를 **XML 형식의 피드**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구독한 사이트의 갱신 내용을 쉽게 모아 볼 수 있게 한다.

공통 해설

RSS는 자주 갱신되는 웹 콘텐츠를 XML 문서인 피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드에는 새 글의 제목·링크·요약 등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RSS 리더는 이용자가 등록한 피드를 읽어 갱신 내용을 모아 보여 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조건인 **자주 갱신되는 정보의 XML 기반 제공**은 RSS의 기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여러 뉴스 사이트의 RSS 피드를 리더에 등록하면 각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새 기사 목록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사의 링크를 열어 내용을 읽을 수 있다.

NoteBase

문 14. 문 14. 지프의 제1법칙(Zipf's Law)을 적용할 때,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상수는 120이다)

한 문헌에서 단어의 사용 빈도를 계산한 결과 'the'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of', 'and', 'to'의 순으로 높았다. 'the'라는 단어가 120번 사용되었다면, 같은 문헌에서 'of'는 (㉠)번, 'and'는 (㉡)번, 'to'는 (㉢)번의 사용 빈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① ㉠: 100, ㉡: 80, ㉢: 60

② ㉠: 90, ㉡: 60, ㉢: 30

③ ㉠: 80, ㉡: 40, ㉢: 20

④ ㉠: 60, ㉡: 40, ㉢: 3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프의 제1법칙에서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빈도 순위에 반비례**한다. 1위 단어가 120번 사용되었으므로 2·3·4위인 'of', 'and', 'to'의 사용 빈도는 각각 60번, 40번, 30번이다.

계산 과정

지프의 제1법칙은 **단어의 빈도 순위와 사용 빈도의 곱이 일정하다**는 관계이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매긴 순위를 r, 사용 빈도를 f, 상수를 C라 하면 $r \cdot f = C$, 즉 $f = \frac{C}{r}$이다. 이 문제에서는 C = 120이며, 1위인 'the'의 사용 빈도 120번도 이 관계에 부합한다.

㉠ 'of': 'the' 다음으로 빈도가 높으므로 2위이다. $f = \frac{120}{2} = 60$이므로 사용 빈도는 60번이다. 이는 1위 단어 사용 빈도의 절반이다.

㉡ 'and': 빈도 순위가 3위이므로 $f = \frac{120}{3} = 40$이다. 따라서 사용 빈도는 40번이다.

㉢ 'to': 빈도 순위가 4위이므로 $f = \frac{120}{4} = 30$이다. 따라서 사용 빈도는 30번이다.

㉠ = 60, ㉡ = 40, ㉢ = 30이므로 ④의 수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참고사서와 이용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참고사서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이용자와 직면했을 때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적 경청 기법을 사용한다.
ㄴ. 참고사서와 이용자의 개인적 상호작용은 올바른 정답을 주는 것만큼 이용자 만족과 재방문 의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ㄷ. 이용자가 표현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파악하는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ㄹ. 이용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성문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참고봉사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가 존중받는 상호작용**이 함께 중요하다. 공감적으로 듣고 질문하여 정보요구를 확인하며, 갈등 상황에서는 **문서로 정한 공통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공감적 경청은 이용자의 말뿐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며 듣는 것이다. 분노하거나 당황한 이용자에게는 **감정을 인정하고 차분히 요구를 확인**하는 태도가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

ㄴ. O: 참고봉사의 만족도에는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뿐 아니라 사서가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하며 응대했는지도 영향을 준다. 이용자가 **편안하게 질문하고 도움받았다고 느끼는 경험**은 만족과 재방문 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ㄷ. O: 이용자가 처음 표현한 질문만으로는 실제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목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서는 **개방형 질문, 경청, 재진술과 확인** 등을 교육·훈련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ㄹ. O: 성문화된 정책은 서비스 범위, 이용 규칙, 갈등 처리 절차 등을 문서로 명확히 정한 기준이다. 이를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기대와 대응 기준을 공유**하고 직원별로 다른 처리를 줄일 수 있어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한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도서관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용자가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② 이용자에게 건물의 물리적 시설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재방문하여 자원을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도서관 이용에 대한 교육으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④ 정보리터러시 교육 이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다른 관종의 사서들에 비해 정보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보리터러시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평가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다. 도서관 시설이나 소장자료를 아는 데서 나아가,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탐색·평가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정보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찾은 정보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하고 믿을 만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② X: 시설을 소개하고 도서관에 친숙해지도록 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에 해당한다. 정보리터러시 교육은 이러한 안내를 넘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평가하며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X: 도서관 소장자료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교육이나 자료 안내에 가까운 설명이다. 정보리터러시 교육은 **특정 도서관의 소장자료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④ X: 초기 정보리터러시 교육은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학생의 정보탐색과 학습을 연결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논의·개발되었으므로,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다른 관종보다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NoteBase

문 17. 서지결합(bibliographic coup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문헌의 서지결합 빈도가 높을수록 두 문헌은 주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② 특정한 두 문헌의 서지결합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한다.

③ 두 문헌이 특정한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의 관계이다.

④ 초기 문헌들을 인용하는 나중 문헌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서지결합 빈도는 두 문헌이 **공통으로 인용한 문헌의 수**이다. 두 문헌이 발행되면 참고문헌 목록이 확정되므로, 두 문헌 사이의 서지결합 빈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두 문헌이 공통으로 인용한 문헌이 많다는 것은 연구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많이 공유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서지결합 빈도가 높을수록 **주제적으로 밀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통 인용이 많다고 두 문헌의 주제가 반드시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X: 특정한 두 문헌의 참고문헌 목록은 발행 시점에 확정되므로, 공통으로 인용한 문헌의 수도 **발행 후에는 일정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한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이후의 다른 문헌이 이 두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동시인용 빈도이다.

③ O: 서지결합은 **두 문헌이 같은 문헌을 공통으로 인용**하여 맺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 문헌 A와 문헌 B가 모두 문헌 C를 인용하면 A와 B 사이에 서지결합이 성립한다. 여기서 관계를 맺는 대상은 A와 B이고, C는 두 문헌을 연결하는 공통 참고문헌이다.

④ O: 서지결합에서는 먼저 발표된 문헌을 공통으로 인용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나중에 발표된 인용 문헌들**을 연결한다. 반대로 동시인용은 나중 문헌이 함께 인용한 기존 문헌들을 연결한다. 두 방식은 공통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하는 쪽을 연결하는지, 함께 인용된 쪽을 연결하는지에서 구별된다.

NoteBase

문 18. Big6 Skills 모델의 기본 6단계 중 ㉠과 ㉡단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과제 정의 → ( ) → (㉠) → (㉡) → ( ) → 평가

① ㉠: 소재 파악과 접근, ㉡: 통합정리
② ㉠: 정보검색전략, ㉡: 소재 파악과 접근
③ ㉠: 소재 파악과 접근, ㉡: 정보활용
④ ㉠: 정보활용, ㉡: 통합정리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료를 찾는 **소재 파악과 접근** 다음에는 자료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정보활용**이 이어진다. 여러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묶어 결과물로 제시하는 통합정리는 그다음 단계이다.

올바른 순서

과제 정의 → 정보검색전략 → ㉠ 소재 파악과 접근 → ㉡ 정보활용 → 통합정리 → 평가

과제 정의: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하고,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필요한 정보가 분명해져야 적합한 정보원을 선택할 수 있다.

정보검색전략: 이용 가능한 정보원을 폭넓게 살펴보고,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정보원을 선택한다. **어떤 정보원을 이용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며, 선택한 자료를 실제로 찾는 단계와 구별된다.

㉠ 소재 파악과 접근: 선택한 정보원의 위치를 찾아 접근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을 찾는다. 자료와 정보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그 내용을 읽고 활용할 수 있다.

㉡ 정보활용: 찾은 자료를 읽거나 듣거나 보면서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활동**으로, 여러 정보원의 내용을 하나의 결과물로 조직하는 통합정리에 앞선다.

통합정리: 여러 정보원에서 추출한 정보를 조직하고 결과물로 제시한다. 앞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과제의 목적에 맞게 묶어야 완성된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물이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와 정보문제 해결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한다. **결과의 효과성과 과정의 효율성**을 함께 살핀다.

NoteBase

문 19.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도서관 이용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오늘날 도서관 이용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로만 묶은 것은?

① Samuel Green, Otis Robinson
② Robert Taylor, Charles Bunge
③ Samuel Green, Michael Eisenberg
④ Charles Bunge, Otis Robinson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Samuel Green과 Otis Robinson은 19세기 후반에 **자료 보관을 넘어선 사서의 이용자 교육 역할**을 강조했다.

구성 요소별 해설

Samuel Green: 1876년에 사서와 독자의 관계를 논하면서, 목록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자료를 찾고 활용하도록 직접 지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도는 이용자가 **스스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Otis Robinson: 1876년에 사서를 단순한 장서 관리자가 아닌 **학생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 보았다. 대학도서관에서 학생이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사서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bert Taylor: 1968년의 질문 협상과 정보탐색 연구 등으로 알려진 **20세기의 연구자**이다. 이용자의 질문에서 실제 정보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을 연구했으므로, 문항이 묻는 19세기 후반 이용 교육의 선구자와는 시기가 다르다.

Charles Bunge: 참고면담과 참고서비스의 평가 등을 연구한 **20세기의 학자**이다. 참고서비스에 기여한 인물이지만, 19세기 후반에 도서관 이용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Michael Eisenberg: Robert Berkowitz와 함께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Big6 모형**을 개발한 인물이다.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되지만 그 활동은 20세기 이후이므로, 19세기 후반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19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와 도서관 이용 교육의 필요성 주장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은 Samuel Green과 Otis Robinson이며, 이 둘을 묶은 것이 ①이다.

NoteBase

문 20. Karen Spärck Jones의 역문헌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단어가 출현한 문헌의 수이다.

② 한 문헌에 특정 단어가 출현한 횟수이다.

③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 출현하면 이 단어들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 함께 출현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④ 문헌 빈도가 낮은 단어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많은 문헌에 출현한 단어는 문헌들을 식별하는 능력이 낮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역문헌 빈도는 **적은 수의 문헌에 출현하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여러 문헌에 두루 나타나는 단어보다 일부 문헌에만 나타나는 단어가 문헌의 특징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특정 단어가 출현한 문헌의 수는 **문헌 빈도(DF)**이다. 한 문헌에서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와도 해당 문헌은 한 편으로 센다. 역문헌 빈도(IDF)는 이 문헌 빈도가 낮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② X: 한 문헌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횟수는 **단어 빈도(TF)**이다. 이는 개별 문헌 안에서의 반복 횟수이며, 문헌집합 전체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드물게 나타나는지를 반영하는 역문헌 빈도와 구별된다.

③ X: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 함께 나타나는 정도로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동시출현**에 관한 설명이다. 역문헌 빈도는 두 단어 사이의 관련성이 아니라, 한 단어가 출현한 문헌 수를 바탕으로 그 단어의 가중치를 정한다.

④ O: Karen Spärck Jones의 역문헌 빈도는 **문헌 빈도가 낮을수록 단어의 중요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많은 문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특정 문헌을 다른 문헌과 구별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문헌집합에서 90편에 나타나는 단어보다 2편에만 나타나는 단어에 더 높은 역문헌 빈도 가중치를 부여한다.

NoteBase